

영암F1 우승 페텔 매니저

브리타 레스케



## “영암대회 잘 정돈되고 음식도 훌륭했다”

새로운 ‘F1 황제’로 떠오른 제바스티안 페텔(독일·레드불)의 공식행사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금발의 미녀가 있다.

페텔의 홍보담당 매니저를 맡고 있는 브리타 레스케(34·독일)가 바로 주인공이다.

레스케는 페텔이 레드불 레이싱팀에 입단한 2009년부터 페텔과 인연을 맺었다.

성실하고 빈틈이 없는 일 처리 능력을 인정받은 레스케는 지난해 6월 F1 캐나다 그랑프리가 끝나고는 아예 레드불에서 퇴사하고 페텔의 개인 매니저로 변신했다.

레스케의 역할은 다양하다. 페텔에게 쓰아지는 인터뷰 및 출연 요청을 받아 선별하고 그의 인터뷰 내용을 모두 옆에서 녹음해 나중에 필요한 언론에 코멘트로 제공한다. 페텔의 인터뷰 내용도 미리 조언해주는 등 사실상 이전트와 같은 역할을 한다.

지난해와 올해, 페텔이 한국에 입국할 때 전세기 편으로 동행한 몇 안 되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레스케일만큼 페텔의 각별한 신임을 얻고 있다.

나이가 페텔보다 10살이 많은 레스케는 “페텔과 단단한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이었나”는 질문에 “글쎄, 나도 모르겠다”며

옆에 있던 레드불 팀 동료에게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팬들이나 언론의 갑작스런 사인 또는 취재 요청을 거절하는 것도 레스케의 역할이다.

12일 무안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도 페텔은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에 특별한 답을 하지 않았고 옆에 있던 레스케가 “오늘 시간도 늦었으니 내일 서킷에서 인터뷰를 하자”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페텔이 어린 나이에 2년 연속 F1 정상을 지킬 수 있었던 요인에 대해 그녀는 “정신력이 매우 강하고 운전 실력이 뛰어나다. 앞으로도 몇 차례

더 텁파언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레스케는 “페텔은 전 세계 그랑프리를 돌아다니며 꼭 그 지역의 음식을 맛본다. 지난주 일본 대회에서는 일본 음식을 먹었고 이번에 한국에 와서도 한국 음식을 좋아했다”고 전했다.

두 번째 치르는 한국 대회의 인상에 대해 그녀는 “지난해에는 팬 사인회나 인터뷰 때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페텔이 곤란해 하는 장면도 자주 나왔다”며 “올해는 잘 정돈된 느낌이 든다. 방송 인터뷰 구역의 질서도 더 잘 잡힌 것 같다” 평가했다.

/김경인기자 kki@ 연합뉴스

김일태 영암군수 국방부장관상



김일태 영암군수가 최근 서울 국방대학교에서 열린 리더십 우수 실천사례 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인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국방대학교가 ‘공직자로서의 모범적인 리더십 발휘 사례’라는 주제로 주최한 이번 발표회는 각계각층의 리더십 우수 실천사례 발굴과 분석을 통한 새로운 한국형 리더십 도출을 위해 개최됐다.

김 군수는 농업과 문화관광, 지역경제, 교육,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광복 60주년 성과에 대한 사례와 6가지 리더십 유형을 제시해 찬사를 받았다.

한편, 김 군수는 최우수상 상금 1백만 원을 영암군민장학회에 흔쾌히 기탁할 예정이다. /종부취재본부=문병선기자

김미원·이정숙 전대 명예교수

간호대학에 1천만원씩 기부



## 전국 첫 ‘행복의원’ 진료 개시

### 온퇴의사 정우남씨 완도 노화읍에 1호점



온퇴의사로서 의료 사각지대 지역민을 위해 진료에 나서는 ‘행복의원’ 1호점이 14일 문을 열었다.

완도군은 이날 노화읍에서 ‘행복의원’을 운영하는 정우남(68)씨에게 ‘행복의원 제1호’ 현판을 전달했다.

미국에서 가정의학과 소아과 전문으로 30여 년 동안 근무한 정씨는 다양한 진료경험과 풍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료 취약지역인 노화읍을 보건지소에서 노화읍을 비롯해 소안·보길도 섬 주민, 특히 소아과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한다.

개원 첫날에는 21명의 소아과 환자를 진료했다.

또 정씨의 부인 박성자(61)씨는 중학교 영어교사로 근무한 경험을 살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과 후 1시간 30분 동안 무료 영어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온퇴의사를 활용한 ‘행복의원’은 의료 사각지대인 섬지역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특수시책 사업이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 조대부고총동창회 친선체육대회 성료



제22년차 조대부고총동창회 친선체육대회가 16일 동구 학동 고교 운동장에서 열렸다.

조대부고 동문의 화합과 우정을 위해 마련된 친선체육대회에서 동문 및 동문가족들은 족구, 줄다리기, 피구, 윷놀이 등을 하며 친목의 시간을 보냈다. 끼를 뽐내는 ‘우정의 한마당’ 무대 도 마련돼 조대부고인들의 축제 한마

당이 펼쳐졌다.

정병용(12회) 총동창회장은 “동문들이 친목과 단합을 보여주었기에 조대부고가 더욱 빛나고 있으며 역사와 전통을 가진 동문화로 자리매김을 하게됐다”며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희망은 솟는다’ 교가의 한 구절처럼 조대부고인의 모습을 크게 그려나가자”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

## 장상근씨 등 5명 ‘자랑스런 동신인상’ 수상



장상근

정영태

박남기

故 문은선

구제길

광주 동신고등학교 총동창회(회장 김경수)는 16일 ‘제8회 자랑스런 동신인상’ 수상자로 장상근 광주시 건설협회 상임부회장 등 5명을 선정, 시상했다.

사회봉사부문 장상근 광주시 건설협회 상임부회장은 광주의 문화, 체육, 환경시설 등 각종 건축공사를 추진해 광주의 위상을 빛나게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사회봉사부문 정영태 국가동반성장 위원회 사무총장을 지난 27년간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원을 위해 현신 적으로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경인기자 kki@

## 문세영 前 전주지검 부장검사 별세

문세영 전 전주지검 부장검사(사시 23회)가 16일 오전 8시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57세.

광주일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고인은 1989년 광주지검 근무 시절 조선대생 이철규 변사 사건을 맡아 사망원인이 타살이 아닌 실종사였음을 밝혀냈다.

같은 해 서울지검 민생특수부로 옮겨 서방과 김태춘씨 등 전국 16개 폭력조직 두목을 구속하면서 ‘조폭잡는 검사’로도 불렸다. 지난 1996년 전주지검 형사부사장 때 조문을 다녀오던 중 통사고를 당해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으나, 팔다리 마비, 언어장애 등으로 투병해왔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 발인 18일 오전 9시 (02)3410-6917 /01총행기자 golee@kwangju.co.kr



## 동구청-사회단체 푸른길공원 대청소



광주 동구청(청장 유태명) 직원과 사회 단체 회원 등 1000여명은 최근 UEA광주정상회의를 비롯한 잇따른 국제회의 손님맞이를 위해 푸른길공원 및 동구지역 공원에서 대청소를 실시했다. <동구청 제공>

## ARS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업무협력 협약



10월 14일 11:00 ◆장소 :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GS

한국콜센터산업정보연구소(소장 정기수·오른쪽)와 한국정보통신신호협회 방송통신이용자보호센터(센터장 곽진교)는 14일 콜센터 산업 활성화 및 ARS서비스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상호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국립원장 김경수(왼쪽)와 GS칼텍스 대표이사 김기현(오른쪽)은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했다.

국립원장 김경수(왼쪽)와 GS칼텍스 대표이사 김기현(오른쪽)은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했다.

국립원장 김경수(왼쪽)와 GS칼텍스 대표이사 김기현(오른쪽)은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했다.

국립원장 김경수(왼쪽)와 GS칼텍스 대표이사 김기현(오른쪽)은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했다.

국립원장 김경수(왼쪽)와 GS칼텍스 대표이사 김기현(오른쪽)은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했다.

국립원장 김경수(왼쪽)와 GS칼텍스 대표이사 김기현(오른쪽)은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했다.

국립원장 김경수(왼쪽)와 GS칼텍스 대표이사 김기현(오른쪽)은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했다.

국립원장 김경수(왼쪽)와 GS칼텍스 대표이사 김기현(오른쪽)은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했다.

국립원장 김경수(왼쪽)와 GS칼텍스 대표이사 김기현(오른쪽)은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했다.

국립원장 김경수(왼쪽)와 GS칼텍스 대표이사 김기현(오른쪽)은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했다.

국립원장 김경수(왼쪽)와 GS칼텍스 대표이사 김기현(오른쪽)은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했다.

국립원장 김경수(왼쪽)와 GS칼텍스 대표이사 김기현(오른쪽)은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했다.

국립원장 김경수(왼쪽)와 GS칼텍스 대표이사 김기현(오른쪽)은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했다.

국립원장 김경수(왼쪽)와 GS칼텍스 대표이사 김기현(오른쪽)은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했다.

국립원장 김경수(왼쪽)와 GS칼텍스 대표이사 김기현(오른쪽)은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했다.

국립원장 김경수(왼쪽)와 GS칼텍스 대표이사 김기현(오른쪽)은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했다.

국립원장 김경수(왼쪽)와 GS칼텍스 대표이사 김기현(오른쪽)은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했다.

국립원장 김경수(왼쪽)와 GS칼텍스 대표이사 김기현(오른쪽)은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했다.

국립원장 김경수(왼쪽)와 GS칼텍스 대표이사 김기현(오른쪽)은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했다.

국립원장 김경수(왼쪽)와 GS칼텍스 대표이사 김기현(오른쪽)은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했다.

국립원장 김경수(왼쪽)와 GS칼텍스 대표이사 김기현(오른쪽)은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했다.

국립원장 김경수(왼쪽)와 GS칼텍스 대표이사 김기현(오른쪽)은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했다.

국립원장 김경수(왼쪽)와 GS칼텍스 대표이사 김기현(오른쪽)은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했다.

국립원장 김경수(왼쪽)와 GS칼텍스 대표이사 김기현(오른쪽)은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했다.

국립원장 김경수(왼쪽)와 GS칼텍스 대표이사 김기현(오른쪽)은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했다.

국립원장 김경수(왼쪽)와 GS칼텍스 대표이사 김기현(오른쪽)은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했다.

국립원장 김경수(왼쪽)와 GS칼텍스 대표이사 김기현(오른쪽)은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했다.

국립원장 김경수(왼쪽)와 GS칼텍스 대표이사 김기현(오른쪽)은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했다.

국립원장 김경수(왼쪽)와 GS칼텍스 대표이사 김기현(오른쪽)은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했다.

국립원장 김경수(왼쪽)와 GS칼텍스 대표이사 김기현(오른쪽)은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했다.

국립원장 김경수(왼쪽)와 GS칼텍스 대표이사 김기현(오른쪽)은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했다.

국립원장 김경수(왼쪽)와 GS칼텍스 대표이사 김기현(오른쪽)은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했다.

국립원장 김경수(왼쪽)와 GS칼텍스 대표이사 김기현(오른쪽)은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했다.